

## 갈보리 소식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1 교회표어: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행6:4)

① 이삭줍기 주일: 오늘은 이삭줍기 주일로 지킵니다.

② 당회: 1부 예배 후 8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③ 미니체육대회: 공동체별 탁구 대회가 있습니다. 후원과 협조 부탁 드립니다.

일시: 2001년 9월 10일(토) 오후 1시 30분 - 오후 6시

장소: 교회 (학생 예배 홀) 참가팀 구성: 공동체별 (단, 복식)

경기방식: 남녀 개인 단식과 남녀 혼합 복식 (중복출전 금지, 계시판 참조)

조추첨: 9월 4일 1부 예배 후 친교실 (문의: 현석호 장로, 박영태 집사)

④ 모집: 11월 말에 있을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일시: 2011년 11월 23일(수) - 11월 30(수) 신청서: 교회 로비

선교지역: 바누아트 삼마지역. 대상: 칼리지 Form 5 - 장년

회비: 1100불(개인) 훈련: 8주 (매주 화, 또는 목)

⑤ 수요일예배: 이번 주 수요일예배는 터키 공동체 주관 예배입니다.

⑥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실에서 있습니다.

⑦ 월례회: 4남, 1여 선교회 월례회가 1부 예배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⑧ 변경: 윤형권 집사 전화번호가 410-984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갈보리교회 선교지

#### 해외 선교지

▷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지역)

▷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지역)

#### 국내 선교지

▷ City Mission 섬김

▷ 밀알장애우 봉사

### 9월 교회일지

#### 미니 체육대회:

9월 10일 (토요일)

#### 성찬주일:

9월 25일 (주일)

### 새로 등록하신 분

### 전화번호

### 주소

이복연집사 (夫 박희영, 하현, 윤송) 021-1130-119 5 Hillcrest Ave, North Shore

### 9월 예배 기도자 및 안내자


	1부기도	2부기도	수요기도	예배 안내	새신자 안내	주차 안내	주방 봉사
4일	고성일	심창진	박해숙	이광희/이규임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재연
11일	김영길	방명아	박후임	이광희/이규임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재연
18일	박덕철	원미경	손조훈	이광희/이규임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재연
25일	박병민	최장한	정옥자	이광희/이규임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재연

###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

1. 투병 중인 기성 형제가 믿음으로 용기를 갖게 하시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영, 육간의 질병으로 고통 중이 있는 성도들의 빠른 쾌유와 자유함을 위해.
2. 타성에 젖은 신앙에서 깨어나고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에 성령이 임하시므로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이 회복되도록.
3. 교회에 더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며 성전 건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깨닫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4. 11월 단기선교에 많은 성도가 관심을 두고 협력하며 준비와 훈련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열방의 선교사들이 영육으로 강건하여 기쁨으로 사역을 하도록

###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심창진  
교육전도사 : 진혜령  
시무장로 : 김영길, 이광희, 정관영, 현석호  
은퇴장로 : 김교섭, 박일영, 정덕수, 최재학, 유승재, 박제용  
지휘 : 신경화  
반주 : 송민영, 유지선



### 갈보리 교회 목표

하나님 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 갈보리 교회 비전

1.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2.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
3.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11 교회표어: (사도행전 6:4)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 예배시간안내

주일1부예배	주일	PM1:00	본당	유아부	주일	PM1:00	유아실
주일2부예배	주일	PM3:00	본당	아동부	주일	PM1:00	Chapel
수요일예배	수요일	PM7:30	본당	중고등부	주일	PM1:00	별관
새벽기도	금요일	AM5:50	Chapel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Ph: 09 - 369-5077

##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2011년 8월 28일

주보 13권 35호

www.calvary.org.nz

## 주일1부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시편 84:10-11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찬송	28장 다함께
*성서교독	50. 시편 116편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91장 다함께
대표기도	현석호장로
성경봉독	사도행전 2:5-13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성령이 오셨네 2 이태한목사
찬송	182장 (169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주기도문 송 다함께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기도순서안내	다음주 기도: 고성일집사	9월 11일: 김영길장로
건축헌금	지난주 헌금: \$130.00	총계: \$598,167.19

## 주일2부예배

오후3시	찬양	청년찬양단	다함께
기도	장연식집사		
성경봉독	사도행전 6:2-6	인도자	
설교	<b>떡함 받은 그대</b>	심창진목사	
찬송	나의 안에 거하라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축도	심창진목사		

다음주 기도: 심창진목사

## 성서교독 50. 시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움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 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와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 수요예배

오후7시30분	사회: 박덕철집사
찬양	터키 공동체 다함께
기도	박제용장로
성경봉독	사사기 2:1-10 인도자
터키소개	박덕철집사
특송	터키공동체
설교	<b>여호와와 의사</b> 이태한목사
합심기도	이태한목사
광고	담임목사
찬송	288장 (204장) 다함께
주기도	다함께

수요예찬 기도: 오지영권사  
다음 수요기도: 유승재장로

## 갈보리 칼럼

### 무화과 나무의 고민

23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 시골의 어느 한적한 병원에 2개월 정도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입원실 참가, 담을 사이에 두고 손만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이웃집 무화과나무가 길게 가지들 내린 상태에서 주먹만한 무화과가 여기저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이기는 해도 다리를 다쳐 먹는 것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던 터라 터질 듯이 익어가는 무화과를 그냥 둘 만큼 인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담 넘어 온 가지에 열린 무화과는 죄다 따다가 (병문안 온 친구들이 뺏습니다.) 맛있게 먹은 기억은 이곳에 온 아직도 새롭기에 때때로 집사람 등쌀에 못이겨 Pak' n Save에 갔다가 무화과 열매를 보면 사서 먹어보곤 합니다. 그때 그 맛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시장하신 나머지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았으나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은 유월절 절기를 맞아 성전에 가신 예수님은 그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환전소를 차린 자들을 향해 분을 내시며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 날 아침, 벌어진 예수님의 의의 분노였습니다.

사실 그때는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혀질 계절이 아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분노가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는 때를 따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장터로,

사업장으로, 환전소로 변질시키도록 묵인한, 그래서 미필적 고의의 간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의로운 척, 경건한 척 위선에 가득 찬 그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을 꾸짖고 책망하기 위해 무화과나무를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걸만 번지르르 하고 열매를 없는 종교인들을 교훈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만일 나 자신의 삶과 행실에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는 부분을 느껴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실상 그 사람은 대체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일 가능성이 짙습니다. 그 고민이 자기 자신의 진실된 고민이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한 고민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고민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민을 고민으로만 끝내는 사람은 꽃만 피우고 마는 나무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변명, 자기 방어만 하다가 중단해버리지 않도록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의 수준을 주님께 도와 달라고 요청하라는 것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는가? 자신의 열매가 없어서 고민하고 열매 맺고자 하는 열정이 진실로 있는가? 그리고 그 고민 후에 자신을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진보가 있는가? 만일 있다면 그 고민은 참으로 선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좋은 나무로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멈추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거룩한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것입니다.

- 이태한 목사